

# 추신수, 인천 '상륙'...신세계 야구단과 27억원에 계약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서에 사인하는 추신수. (사진 = 신세계 야구단 제공)

SK,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서 1순위 지명...매각 후 지명권 보유

“늘 마음 속 KBO리그 그리움...그라운드서 최선 다하는 모습 보일 것”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9)가 인천에 상륙한다.

신세계그룹은 23일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인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추신수는 연봉 가운데 1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구단과 협의하기로 했다.

부산고를 졸업한 뒤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고 미국에 직행했던 추신수는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SK 와이번스는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추신수를 1순위로 지명했고, 추신수가 국내에 복귀하면 SK에 입단해야 했다. 이날 SK텔레콤과 야구단 인수·매각 본계약을 하는 신세계그룹은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추신수가 신세계 야구단 1호 영입 선수가 됐다.

신세계그룹은 “야구단 인수를 결정한 직후부터 추신수의 영입을 원하는 인천 야구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지난달 야구단 인수를 결정한 직후 추신수 측에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며 “지난주부터 야구단을 통해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신수가 16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통해 보여준 성공적인 커리어와 성실함, 꾸준함에 주목했다. 팀 내 리더십, 동료들의 평판,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여준 코리안 빅리거의 품격을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2013시즌을 마친 뒤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한 추신수는 2020시즌을 마친 뒤 텍사스와 계약이 만료돼 FA 신분이 됐다.

몇몇 MLB 구단들이 추신수에 관심을 보였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단

도 있었다. 그러나 KBO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있던 추신수는 신세계그룹의 구애에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시애틀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시애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 등을 거치며 메이저리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메이저리그 통산 16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961득점 157도루를 기록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활약을 펼쳤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3할-20홈런-20도루(2009년), 사이클링 히트(2015년)를 기록했으며 호타준족의 잣대로 평가 받는 20홈런-20도루는 통산 3차례나 달성했다.

2018년에는 생애 첫 올스타에 뽑혔고, 현재 아시아 출신 타자 최다 홈런(218개)과 최다 타점(782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마무리 한 뒤 추신수는 “지난해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지만, 고맙게도 메이저리그 몇 개 팀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했다. 그러나 늘 마음 속에 KBO리그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행이 야구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결정이기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신세계그룹의 방향성과 정성이 결정에 큰 힘이 됐다. 가게 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신수는 “야구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팬 분들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고 싶다”며 “실례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아직 구단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세계라는 팀을 통해 곧 인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며 도착 후 공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한다. 추신수는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곧바로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인천 야구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김원형 SK 감독 “추신수 영입, 외인 타자 하나 더 얻은 느낌”

“미국서 주로 맡아온 포지션·역할 이어가도록 환경 조성”

메이저리그(MLB)에서 최정상급 타자로 활약하던 추신수(39) 영입에 김원형 SK 와이번스 감독도 반색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스프링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김 감독은 23일 SK가 추신수 영입을 발표하자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다년간 활약을 펼쳤

다. 외국인 타자를 하나 더 얻은 것 같다”며 기뻐했다.

SK 구단을 인수하는 신세계그룹은 이날 오전 추신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추신수에게 프로야구 사상 최고액인 연봉 27억원을 안겼

다. 부산고를 졸업한 뒤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고 미국으로 떠난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에서 빅리그에 데뷔했고, 16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통산 16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961득점 157도루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로 활약했다.

고교 졸업 뒤 미국에 직행한 추신수

가 KBO리그에서 뛰려면 SK에 입단해야 했다. SK가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추신수를 1순위로 지명했기 때문. 신세계그룹이 SK텔레콤으로부터 야구단을 사들이면서 추신수에 대한 보유권도 같이 넘어갔다.

2020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추신수에 8개의 MLB 구단이 관심을 드러냈지만, 추신수는 아직

기량이 남아있을 때 KBO리그에서 뛰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1월초부터 꾸준히 관심을 전해온 SK의 정성도 추신수가 한국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시애틀 입단 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한 추신수의 포지션은 외야수다. 우익수로 922경기에, 좌익수로 203경기에, 중견수로 160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최근에는 종종 지명타자로도 나섰다.

김 감독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로 맡아 온 포지션과 역할을 그대로 우



리 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다”며 외야수로 기용할 뜻을 내비쳤다.

뉴스



신세계의 역사적인 첫 공식전이 될 4월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2021시즌

KBO리그 개막전이 사연 많은 추신수의 가세로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 추신수 vs 이대호·추신수 vs 롯데...“4월3일 인천을 주목하라”

신세계는 23일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인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 구단의 1호 영입이다. 추신수는 연봉 가운데 1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추신수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7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다. 추신수의 영입이 알려지자 흥분 전 절정된 일이다. 장소는 신세계의 홈인 인천이다.

추신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산 사나이’다.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그의 활동

고교 라이벌 이대호와 대결 2001년 시애틀을 계약전까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롯데 프랜차이즈 박정태 조카

무대는 부산이었다. 또래 부산 지역 야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추신수 역시 롯데 유니폼을 동경하면서 자랐다. MLB 무대를 누비는 동안에도 KBO리그 입성한다면 롯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을 정도다.

외삼촌의 영향도 컸다. 익히 알려졌다 추신수의 외삼촌은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정태다.

하지만 추신수의 롯데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제는 신세계 전신이 된 SK 와이번스가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추신수를 1순위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신세계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언젠가 고향팀을 마주해야 했지만, 국내 무대 데뷔 전부터 성사됐다는 점이 꽤나 이채롭다.

롯데를 대표하는 이대호와와의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 출신 추

신수와 경남고 출신 이대호는 고교 시절 부산을 대표하는 유망주였다. 절친한 관계인 두 선수는 2000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대회 우승을 합작했다.

고교 졸업 후 이들의 행보는 메이저리그(추신수)와 롯데(이대호) 입단으로 갈렸다. 이대호가 일본을 거쳐 2016시즌 시애틀 매리너스에 합류한 뒤 텍사스 레인저스전에 선발 출격해 잠시나마 같은 그라운드에서 호흡했던 두 선수는 에드먼턴 멤버의 유일한 현역으로 국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뉴스

## ‘리그 50경기 23승12무15패’ 무리뉴 최근 토트넘 감독 5명 중 ‘최악 성적’

승률 46% 기록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제 무리뉴 감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2일(한국시간) “무리뉴 감독이 후안데 라모스 이후 토트넘을 거친 5명의 감독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토리뉴 감독은 지난 2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2로 패배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에 그치며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사령탑에 오른 뒤 치른 50경기에서 23승 12무 15패, 승률 46%를 기록했다. 2007년 잠시 토트넘을 이끌었던 라모스 감독 이후 최악의 승률이다.

승률 뿐 아니라 경기당 골도 1.62골로 최근 5명의 감독 중 최하위다.



최근 5명의 감독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사령탑은 팀 셔우드 감독이다.

그는 23경기에서 13승 3무 6패, 승률 59%를 기록했다. 경기당 골도 1.91골이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시절 202경기에서 113승 43무 46패, 승률 56%를 거두 뒤를 이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경기당 골은 1.89골이었다.

뉴스

## ‘샌디에이고 7번’ 김하성, 스프링캠프 첫 공식 훈련 소화

훈련 김하성 영상 공개

본격 야수 경쟁 나서

주전 2루수 자리 두고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경쟁

김하성(26)이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첫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샌디에이고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 야수조 훈련을 시작했다. 김하성도 야수조 훈련에 참가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훈련에 나선 김하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은 장비 가방을 들고 외야로 이동하고 있다.

2020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계약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과 개인 훈련을 하다가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도착 후 격리를 거친 김하성은 피오리아로 이동해 스프링캠프 훈련을 대비해 왔고, 이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첫 공식 훈련을 치렀다.

김하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선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주전 유격수로, 매니 마차도가 주전 3루수로 뛰고 있는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은 주전 2루수 자리를 두고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경쟁할 전망이다.

부산 등이 없다면 김하성은 무난히 개막 26일 로스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시작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스프링캠프 야수조 훈련에 참가한 김하성. (사진 = 샌디에이고 구단 트위터 캡처)

뉴스